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광주 - 동광주IC 구간 광역 통행료 환불
우천시 9홀 이후 홀별요금정산제 실시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신지애 "시즌 5승 보인다"

KLPGA 선수권 2R…7언더
우지연 등 3명과 공동 선두

한국여자골프의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가 시즌 다섯 번째 우승컵에 바짝 다가섰다.

신지애는 25일 경기도 이천 자유골프장(파72.6천508야드)에서 열린 제30회 신세계KLPGA선수권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를 묶어 2타를 줄였다.

중간합계 7언더파 137타로 박우곤(29·테일러메이드), 임지나(21·코오롱), 우지연(21·하이마트)과 공동선두를 달린 신지애는 최종 3라운드에서 챔피언조에서 경기를 치르며 시즌 5승에 도전한다.

최종 라운드에서 유난히 강한 뒷심을 발휘해 '파이널 퀸'이라는 별명을 가진 신지애에게 이틀 동안 공동 선두 고수는 정상 제패에 8부 능선을 넘은 셈.

신지애는 지난해 6차례나 최종 라운드에서 맹타를 휘두르며 역전승을 따냈고 올해도 우리투자증권여자오픈, 한국여자오픈, 그리고 BC카드클래식과 브리티시여자오픈 등에서 최종 라운드 역전극을 펼쳤다.

첫날 완벽한 아이언샷을 퍼팅이 따라 주지 않았던 신지애는 2라운드에서도 그린에서 애를 먹었다.

8번홀까지 1타도 줄이지 못한 신지애는 9번홀(파5)에서 겨우 2라운드 첫 버디를 신고했지만 10번홀(파4)에서 3퍼트로 1타를 잃어버렸다.

박우곤(29·테일러메이드)에 3타나 뒤처졌던 신지애는 12번홀(파4)과 13번홀(파3)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1타차로 따라붙는 데 성공했다..

프로 생활 8년 만에 생애 첫 우승 기회를 맞은 박우곤은 한때 3타차까지 달아났다가 막판 퍼팅 난조로 까먹어 아쉬움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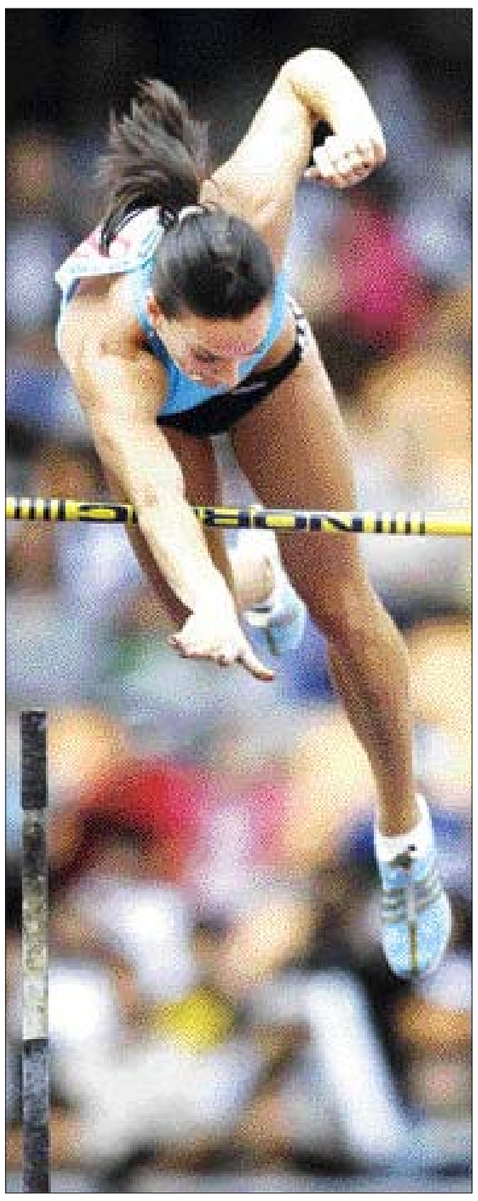
신지애를 9천여만원 차이로 추격하고 있는 상금 2위 서희경(21.하이트)은 이븐파 72타를 치는데 그쳐 순위는 공동15위(3언더파 141타)로 밀렸지만 16번홀(파3)에서 홀인원의 기쁨을 누렸다. /연합뉴스

25일 오후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2008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남자 100m 경기에서 네스타 카터(자메이카·왼쪽)를 비롯한 선수들이 역주하고 있다. 네스타 카터가 10.08초로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카터 男 100m 대회新 우승

〈자메이카〉 〈10초 08〉

대구국제육상경기 어제 개막
'미녀새' 이신바예바 4m60 우승
최윤희 女 장대높이뛰기 한국新



여자 장대높이뛰기 '지존' 옐레나 이신바예바가 25일 오후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2008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 4m60cm를 뛰어 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이신바예바' 최윤희(22·원광대)가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 개인 통산 열여섯번째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또 남자 110m 허들의 희망 이정준(24·안양시청)도 결승에서 13초53을 찍고 베이징올림픽에서 자신이 수립한 한국기록(13초55)을 100분의 2초 앞당기고 2위에 올랐다.

최윤희는 25일 대구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08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여자 장대높이뛰기 결승에서 4m15를 넘어 넉 달 전 종별대회에서 수립한 4m11을 4㎝ 경신했다.

세계기록을 24차례나 작성한 '지존' 옐레나 이신바예바(26·러시아)는 4m60의 저조한 기록으로 우승했다.

5m5의 세계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그는 4m75에서 세 차례 모두 실패하는 등 베이징올림픽 후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다.

베이징올림픽에서 예선 2라운드에 오르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정준은 이날 5번 레인에 출전, 결승선까지 4번 레인의 라이언 윌슨(미국·13초50)과 박빙의 레이스를 펼쳤으나 아쉽게 우승을 놓쳤다.

남자 창던지기에서도 박재명(27·태백시청)이 81m42를 던져 참가 선수 7명 중 3위에 오르며 선전했다.

한편 남자 800m에서는 베이징올림픽 우승자 윌프레드 번게이(케냐)가 1분47초02의 대회신기록으로 정상에 올랐다. 남자 200m에서는 짐바브웨의 브라이언 드징가이가 20초28로 우승했다.

올해 남자 100m에서 10초48을 찍고 혜성같이 등장한 여호수아(21·성결대)는 곡선주로에서 근육통을 호소, 레이스를 포기했다.

셰리카 윌리엄스(자메이카)는 여자 200m에서 22초94로 1위로 골인, 단거리 왕국 자메이카의 명성을 드높였다.

관심이 집중된 남녀 100m에서는 베이징올림픽 400m 계주 금메달리스트 네스타 카터(자메이카)와 올림픽 4위 로린 윌리엄스(미국)가 각각 10초08, 11초21의 대회 신기록으로 단상의 주인공이 됐다.

개인 최고기록이 10초42인 남자 100m 선두주자 임희남(24·광주광역시청)은 10초74에 그쳐 이번에도 한국기록(10초34) 경신에 실패했다.

베이징올림픽 은메달리스트 타티아나 레베데바(러시아)는 여자 멀리뛰기에서 6m65로 정상에 올랐으나 자신의 최고기록(7m33)에는 크게 못 미쳤고 남자 세단뛰기의 김덕현(23·광주광역시청)도 16m48로 3위를 차지했으나 개인 최고기록(17m07)에 한참 부족했다. /연합뉴스

'올림픽 양궁 금' 주현정
종합선수권대회 2연패

2008 베이징올림픽 양궁 단체전 금메달리스트인 광주체고 출신 주현정(현대모비스)이 제40회 종합선수권대회에서 최강 실력을 뽐냈다.

주현정은 25일 경북 예천양궁장에서 열린 여자부 개인전 결승에서 김유미(한국토지공사)를 113-106(120점 만점)으로 누르고 우승했다. 이로써 주현정은 지난해 대회 우승에 이어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3위는 이경주(경희대).

남자부 결승전에선 김보람(두산중공업)이 정성원(경희대)을 113-111로 꺾고 우승했다.

성남·부산 6강 PO 진출

성남 일화와 부산 아이파크가 리그 컵 대회 6강 플레이오프(PO)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었다.

성남은 지난 24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광주상무와의 2008 삼성하우젠컵 최종 10라운드에서 2골을 터트린 김동현의 활약으로 2-0 승리를 거두고 B조 2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다.

마지막까지 경남 FC의 추격을 받았던 부산은 최종전에서 경남이 수원에 1-2로 덜미를 잡히면서 A조 2위 자리를 고수, 플레이오프 티켓을 확보했다.

이로써 자동 진출권을 얻은 포항·전남과 조별리그에서 1위를 차지한 수원·전북에 이어 성남·부산이 우승 상금 1억원이 걸린 컵대회 플레이오프에 합류했다. 한편 노장 스트라이커 우성용(35·울산)은 통산 최다골(115골) 신기록을 작성하며 한국 프로축구 역사를 새롭게 썼다. /김여울기자 wool@

18세 재미교포 여자 야구선수

'호랑이 굴' 노크

재미교포 여자 야구선수 제인 어(18·사진)가 국내 프로야구 진출의 꿈을 안고 25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을 찾았다.

제인 어는 이날 오전 무등경기장을 찾아 KIA 타이거즈 관계자들에게 실력을 테스트받고 2군 선수들과 훈련을 했다. 훈련을 지켜 본 KIA 관계자는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 수비는 수준급이나 타격은 힘에 부치는 모습이었다. 미국에서는 알루미늄 배트를 사용했으나 나무배트를 사용하다 보니 공격력에서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제인 어는 26일 오전에도 무등경기장을 찾아 한 차례 더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다.

제인 어 국내 무대 진출 꿈
어제 KIA에서 실력 테스트
수비 수준급…타격은 미흡

11세부터 야구를 시작한 제인 어는 레드랜즈 고교 2학년 때부터 유격수 겸 투수로 남학생들과 함께 야구부 활동을 한 이력이 있다.

16살이던 2006년 한인 최초로 미국 여자야구대표팀 멤버가 된 제인 어는 최고시속 132㎞의 비교적 빠른 볼을 던지며 주루 실력도 수준급이다.

타율은 3할대로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제3회 여자야구월드컵에서는 미국의 주전 유격수로 활약하며 팀의 3위를 이끌기도 했다.

지난해 태동한 이스라엘 프로야구 무대에도 노크했던 제인 어는 2군 연습생으로라도 한국 프로야구 무대에서 뛰기 위해 지난달 말 아버지와 함께 고국을 찾았다.

그의 아버지는 "무모한 도전으로 비칠지 모르나 국내 구단에서 편견을 갖지 않고 딸의 활용가치를 평가해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며 "딸이 그토록 프로야구에서 남자들과 뛰기를 바라는데 못해줄 게 없다. 필요하다면 샤워실도 사비로 만들 수 있고 남성과 함께 쓰는 라커에는 칸막이를 설치하면 된다"고 밝혔다.

SK와 삼성에서 테스트를 받았던 제인 어는 25일에는 KIA를 찾아 성(性)을 뛰어 넘는 도전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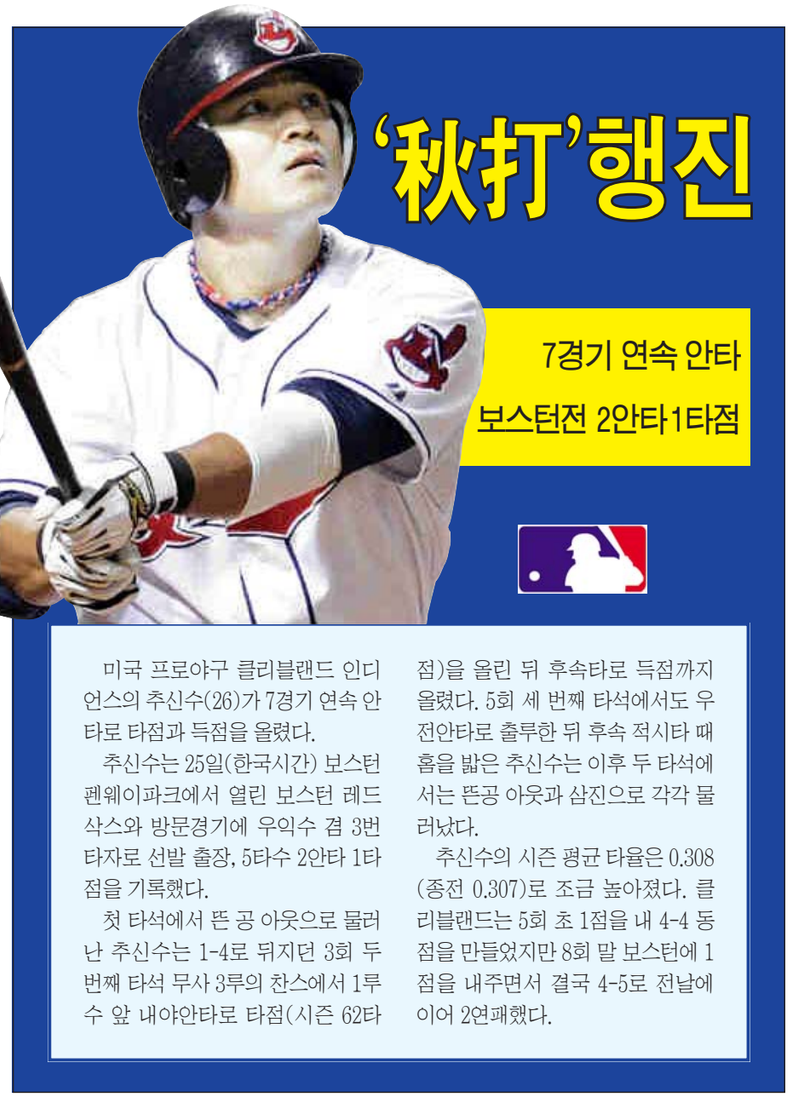
하지만 성역의 벽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탄탄한 기본기와 함께 사상 첫 여자 프로야구 선수라는 희소성과 상품성은 있지만 남자 선수들을 제압할 만한 기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인 어는 당초 이달 말 미국으로 돌아가려던 계획을 바꿔 고국에서 끝까지 프로야구 입단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에서 여성이 남자야구에서 뛴 경우는 지난 1999년 전국고교야구 대통령배 준결승에서 덕수정보고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안향미(27)를 제외하곤 전무후무하다.

국내 여자야구 선수 1호인 안향미는 현재 한국 여자 야구단 선라이즈의 감독으로 활약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미국 프로야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추신수(26)가 7경기 연속 안타로 타점과 득점을 올렸다.

추신수는 25일(한국시간) 보스턴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 방문경기에 우익수 겸 3번 타자로 선발 출장, 5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아웃으로 물러난 추신수는 1-4로 뒤지던 3회 두 번째 타석 무사 3루의 찬스에서 1루수 앞 내야안타로 타점(시즌 62타점)을 올린 뒤 후속타로 득점까지 올렸다. 5회 세 번째 타석에서도 우전안타로 출루한 뒤 후속 적시타 때 홈을 밟은 추신수는 이후 두 타석에서는 뜬공 아웃과 삼진으로 각각 물러났다.

추신수의 시즌 평균 타율은 0.308(종전 0.307)로 조금 높아졌다. 클리블랜드는 5회 초 1점을 내 4-4 동점을 만들었지만 8회 말 보스턴에 1점을 내주면서 결국 4-5로 전날에 이어 2연패했다.